

찜질방·청계천 복원·테마파크...

베니스비엔날레 건축전 두드린다

한겨레신문 04년 6월14일 14면

정기용 커미셔너 출품 구상 밝혀

피시방, 찜질방, 비디오방... 현대 한국의 독특한 방 문화와 전시·단화가 넘쳐나는 테마파크 그리고 서울 청계천 복원 프로젝트가 올해 9~11월 열리는 베니스비엔날레 건축전에서 한국 건축을 대표하는 화두로 정해졌다.

정기용 베니스비엔날레 커미셔너는 지난 주 기자회견을 열어 출품하는 한국 건축가들의 작품 구상과 준비상황 등을 공개했다. 특히 올여름의 한국관 출품이 그치지 않고, 비엔날레 건축전 총감독이 작가들 선정한 주제관에 최문규, 조민석씨가 미국인 제임스 스타에드와 합작품을 내놓았고, 특별전에 김선아씨의 '청계천 복원 프로젝트'가 소개되어 관심을 끈다.

한국관에는 김광수, 송재호, 유석연씨가

'방의 도시'(City of bAng)를 주제로 전시한다. 방(bAng)은 영어의 '방'에 환경친화적이 아닌 한국적 의미를 표상한 고유명사로 노래방, 찜질방, 온라인방 등 일상의 방이 남발되는 한국 도시 문화의 여러 양상들을 건축적 물로 표현했다. 김광수씨는 우리 삶의 전형인 아파트를 사회적 관계를 담은 공간 형식으로 도시화하는 작업을 내놓으며, 송씨는 지금의 도시에서 특별한 조직과 구조를 가상의 미래 환경에 집어넣어 변형되어 가는 과정을 담구겠다는 구상이다. 유석연씨는 '스물 파크'란 이름 아래 학교, 교실, 운동장 등이 주민 교류, 소통 장소로 거듭나는 모델을 소개할 계획이다.

본전시 주제관 출품작은 경기도 과천시 테리리에 있는 지상 2층, 연면적 600여평의 '말기 테마파크'. 전시·패션·휴게실이 있는 복합건물에서 의류·전시상품의 가상 캐릭



제9회 베니스비엔날레 국제건축전에 출품할 한국 작가들. 앞줄 왼쪽부터 시계 반대방향으로 정기용 커미셔너, 한국관 출품작가인 유석연·송재호·김광수씨, 주제관 초빙작가 최문규·조민석씨.

터들이 방문객과 어우러지는 가상·실제의 혼용공간 개념을 선보인다. 김씨의 '청계천 복원 프로젝트'는 6×7.2m 공간에 영상 그래픽으로 청계천의 역사, 복원의 의의, 도시 비전 등을 소개한다. 스위스 출신 건축가 루

르프 포스터가 총감독을 맡은 올해 베니스비엔날레 건축전은 '변용'이란 주제 아래 47개 나라 건축가 150명이 참여한다.

글 노형석 기자, 사진 황석주 기자
stonepole@hani.co.kr